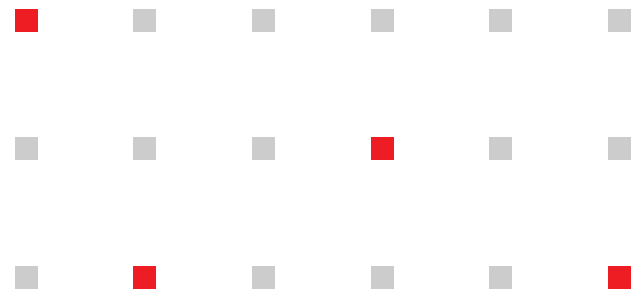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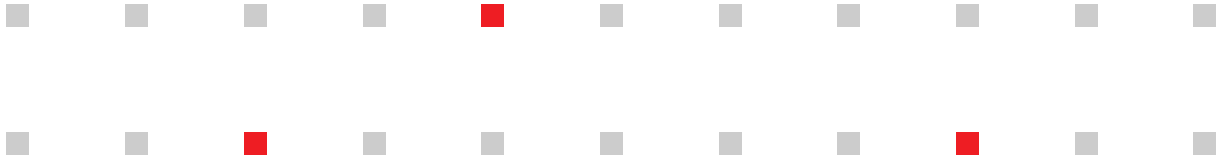


한·EU FTA 체결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진 이 강 진 연구위원 kjl@jd.re.kr
연구진 이 민 수 부연구위원 minsoo.lee@gmail.com
연구진 김 시 백 부연구위원 kimbio96@nate.com

- 제1장 | 한·EU FTA 협상내용
- 제2장 | 분야별 파급 효과
- 제3장 | 분야별 대응방안
- 제4장 | 부록



한·EU FTA 체결이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Contents

제1장 한·EU FTA 협상내용	3
1. 제조업 분야	3
2. 농·축산 분야	3
3. 서비스업 분야	4
제2장 분야별 파급 효과	6
1. 제조업 분야	6
2. 농·축산 분야	9
3. 서비스업 분야	12
제3장 분야별 대응방안	14
1. 제조업 분야	14
2. 농·축산 분야	14
3. 서비스업 분야	15
제4장 부록	1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은 홈페이지 (www.jd.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ssue Briefing



제 1 장 한 · EU FTA 협상내용

1. 제조업 분야

- ● 제조업 분야에서는 농업부문과 달리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며, 유예기간도 상대적으로 짧게 최장 7년의 관세철폐 유예기간을 둠

- 우리나라의 즉시철폐 품목은 전체 품목의 90.7%인 8,535개가 대상이 되며, 주요 품목은 컬러TV 등의 생활가전제품과 섬유제품, 신발류 제품임
- 7년 유예 품목은 45개 품목으로 순모직물, 건설 중장비, 인쇄기계 등임

〈표 1-1〉 농업분야 양허 결과

철폐시점	한국		EU	
	품목수	주요 품목	품목수	주요 품목
즉시	8,535	자동차부품(8), 컬러TV(8), 냉장고(8), 선박(5), 인쇄기계(8), 타이어(8), 항공기부품(3~8) 등	7,201	자동차부품(4.5), 냉장고(1.9), 에어컨(2.7), 역축전지(3.7), 리튬전지(4.7) 등
3년	478	1,500CC 초과 자동차(8), 선박용 엔진 및 부품(8), 식품가공기계(8) 등	151	1,500CC 초과 자동차(10), 신발(17), 자전거(15) 등
5년	346	1,500CC 이하 자동차(8), 하이브리드카(8) 등	46	1,500CC 이하 자동차(10), 하이브리드카(10), 화물자동차(22) 등
7년	45	건설 중장비(8), 인쇄기계(8), 금속절삭가공기계(8), 합판(8~12), 섬유판(8) 등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 ·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일부 수정

주 : ()안의 숫자는 현재 관세율을 의미함

2. 농 · 축산 분야

- ● 한 · EU 양국의 농업 경쟁력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이 이루어질 예정
- 한국은 전체 품목수의 62.5%인 90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는 반면에,

- EU는 98.8%인 2,025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에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됨
-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에서 제외하거나 계절 관세를 도입하여 충격을 완화하는 방식, 10년 이후에 관세 철폐, 셰이프가드 적용 등 다양한 양허 방식

을 도입함
 • 전반적으로 EU는 거의 대부분의 품목을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조

기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FTA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있음

〈표 1-2〉 농업분야 양허 결과

		한국				EU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품목수(개)		수입액(백만\$)	
단기 개방	즉시 철폐	610	42.1%	266	19.5%	1,896	91.9%	45.3	88.3%
	2~3년 철폐	17	1.2%	244	17.9%	10	0.5%	0.4	0.9%
	5년 철폐	278	19.2%	380	27.9%	119	5.8%	5.3	10.3%
	소계	905	62.5%	890	65.3%	2,025	98.1%	51.1	99.5%
중장기 개방	6~7년 철폐	48	3.3%	56	4.1%				
	10년 철폐	275	19.0%	296	21.7%				
	12~15년 철폐	133	9.2%	112	8.2%				
	15년 초과	10	0.7%	0.2	0.0%				
	소계	466	32.2%	465	34.1%				
보호 정책	TRQ 부여	23	1.6%	3.1	0.2%				
	계절 관세	2	0.1%	0.0	0.0%				
	현행 관세 유지	53	3.7%	5.9	0.4%	39	1.9%	0.2	0.5%
	소계	78	5.4%	9	0.7%	39	1.9%	0.2	0.5%
전	체	1,449	100%	1,364	100%	2,064	100%	51.3	100%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일부 수정

-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전체 94.6%인 1,371개 품목이며, 관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품목은 25개 품목이며, 53개 품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예외로 적용
- 현행 관세가 유지되거나 예외로 적용된 품목은 쌀, 감귤, 고추, 마늘, 양파 등 53개 품목이며, TRQ나 계절 관세를 적용받는 품목은 오렌지, 포도, 치즈, 보조사료 등 25개 품목임
- 개방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10년 이상 유예된 품목은 418개 품목임

3. 서비스업 분야

- 서비스분야는 WTO 서비스 분류 155개 섹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15개 분야, EU는 139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함
- 법률·회계·세무 서비스, 유통·건설·금융 서비스는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
- 방송서비스는 2년, 생활하수처리서비스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으며, 생활하수처리 서비스는 진입 규제와 관련한 포괄적 규제 권한이 유보됨

〈표 1-3〉 10년 이상 장기 관세철폐 및 보호정책 대상 품목

	품목수	주요품목
양허 제외	16	쌀
현행 관세 유지	25	감귤, 고추, 마늘, 양파(신선), 냉장, 건조, 감자, 대두, 보리(겉보리, 쌀보리), 인삼(미삼, 본삼, 수삼, 잡삼), 흑설탕 등
현행 관세 유지+TRQ	12	전지/탈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 관세+TRQ	1	오렌지
계절관세	1	포도
15년+TRQ	6	치즈, 보리(맥주맥, 맥아)
12년+TRQ	6	보조사료, 변성전분
10년+TRQ	11	버터, 조제분유, 유장(식용)
20년 철폐	2	사과(후지), 배(동양배)
18년 철폐	7	참기름, 참깨, 땅콩, 녹차, 생강
16년 철폐	1	백설탕
15년 철폐	90	육우, 젓소, 쇠고기, 계란, 우유, 표고버섯, 주정, 메밀, 송이버섯(조제), 전분류, 녹두, 녹용, 녹각, 대추, 밤, 잣, 호두(미탈각), 키위, 인삼류, 혼합조미료 등
13년 철폐	27	닭고기(냉동가슴, 냉동날개), 오리고기, 난황, 고구마, 냉동대추, 팝콘용 옥수수, 스위트콘(건조)
12년 철폐	16	고사리, 들기름, 송이버섯(냉동, 건조), 양파(냉동), 멜론, 수박, 혼합주스(포도) 등
10년 철폐	275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냉장 삼겹살, 목살, 갈비), 감, 양고기, 혼합분유, 발효유, 마요네즈, 잎담배, 강낭콩, 수수, 양배추, 느타리/팽이버섯, 당근, 무, 들깨, 복숭아, 망고, 파인애플, 매실, 과일주스, 인조꿀, 레몬, 로열 젤리 등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 서비스분야의 개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됨
 - 서비스 공급자의 수, 총 거래액 또는 자산 가액, 영업량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음
 - 상대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에게 자국의 동종 서비스 및 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야 함
 - 문화·관광 분야에서 EU 27개국과 시청각 공동 제작협정을 체결하여 상호 공동제작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
- 통신 분야에서는 협정 발효 2년 내에 기간 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 투자를 100% 까지 허용
- 금융 분야에서는 국제거래에 관련된 보험서비스와 금융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부수서비스 분야에 한정하여 개방
- 법률 분야에서는 EU 회원국 변호사 자격 소지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자격취득국의 법률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환경 분야에서는 5년의 유예기간 이후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대해 EU사업자에게 비차별적인 대우를 보장

제 2 장 분야별 파급효과

1. 제조업 분야

●● FTA에 따른 민감품목 선정

- FTA는 양국의 소득을 국내 뿐 아니라 국가 간에 재분배 하는 효과를 가진다.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의 경우에는 수출경쟁력을 무기로서 더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면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은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FTA로 인한 시장잠식을 경험하게 되어 결국은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FTA의 체결은 국내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 이에 따라 FTA 체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각 부문별로 상대국에 대한 비교우위 및 비교열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 FTA 체결 시 주로 관리를 해야 할 품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주로 관리를 해야 할 품목을 FTA에 따른 민감품목으로 규정하고 이를 선정하는 과정은 5단계를 거친다
 - 1단계 : 무역특화지수에 의해 품목을 분류하여 제1품목군은 수출특화품목, 제2품목군은 절대 수입특화 품목군, 제3품목군은 경쟁력 취약 품목군, 그리고 제4품목군은 절대 경쟁력 취약 품목군으로 분류함

-2단계 : 수출증가율에 의한 품목군의 조정과정을 거쳐 제2품목군 가운데 수출증가율의 속도가 산업전체의 평균보다 3배 이상 증가하면 이를 제 4품목군으로 재분류함

-3단계 : 대 EU 무역특화지수에 의한 조정과정을 거쳐 EU에 대한 무역특화지수에 따라 품목군 재조정함

-4단계 : 현시비교우위지수에 의한 품목군 조정 거침

-5단계 : 지역의 성장산업에 포함되는 품목이 제2품목군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4품목군으로 이동하고 여타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 품목을 포함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거침

-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라북도의 주요 업종이 대부분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품목으로 FTA 협상의 관세유예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제1품목으로 선정되어 FTA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나타남
- 여기에서 제2품목군은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여 절대적인 수입특화를 보이고 있는 품목이고 제3품목과 제4품목군은 각각 전라북도가 경쟁력이 다소 취약한 상태로 외국의 제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과 가장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산업은 산업적으로 FTA로 인한 피해가 적을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품목군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차후 세밀한 연구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표 2-1〉 한·EU FTA로 인한 산업별 품목군 분류

산 업	제품군 구분	산 업	제품군 구분
석유화학	HS29: 제1품목군	일반기계	HS84: 제1품목군
	HS38: 제1품목군		
	HS39: 제1품목군		
섬유	HS54: 제1품목군	전기전자	HS85: 제1품목군
	HS55: 제1품목군		
	HS57: 제2품목군		
	HS61: 제1품목군		
철강	HS64: 제4품목군	자동차	HS87: 제1품목군
	HS72: 제1품목군		
	HS73: 제1품목군		

1) 민감품목을 선정하는 5단계를 거쳐 구분된 분류표임
 2) 제품군 구분에 대한 설명은 부록 1 참고

●● 수출입 증감효과

- 한국과 EU의 품목별 수입시장의 가격탄력성을 시계열 모형을 통해 추정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의 대 EU 수출증대 효과 및 한국의 대 EU 수입증대효과를 추산한 방법을 활용하여 전라북도에 적용함
- 국가적으로 제조업 분야 전체적으로 15년 평균 25.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었고 수입증가분은 15년 평균 21.3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었음
-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제조업 분야에서 산업별로 보면 자동차 분야의 수출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입 부문에 있어서는 기계 부문의 수입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전자, 자동차의 순으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분야의 무역수지 흑자가 예측이 되며 석유화학과 섬유 또한 흑자를 낼 것으로 보이나 철강, 기계 분야에서는 무역수지가 적자가

될 것으로 나타남

- 최근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조선 산업의 경우에는 현재 EU와의 수출이 없는 상태이나(2009년 기준) 향후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별크션에는 경쟁력이 있으나 레저용 선박에 있어서는 향후 육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임

〈표 2-2〉 한·EU FTA가 전라북도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달러)

	수출증가액		수입증가액		무역수지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15년 연평균
석유화학	10.3	10.7	1.85	2.07	3.6	3.2
정밀화학	0.3	0.3	1.14	1.32	-0.9	-1.1
섬유	14.9	14.9	2.93	3.01	15.8	15.0
철강	0.2	0.2	0.14	0.14	-10.2	-10.2
기계	0.7	0.7	5.89	6.75	-35.8	-42.1
전기전자	2.2	2.5	4.79	5.27	-0.1	-0.1
자동차	46.9	61.6	3.05	3.43	61.3	82.8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기초로 전북부문 계산

1) 전북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는 국가의 총량에서 산업별 전북의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국내연평균*전북생산량비중)

● ● 생산 증감효과

- 관세철폐로 기대되는 산업별 수출입 증감으로 인해 전라북도의 제조업의 미치는 생산량 증감효과는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남
- 자동차 분야에서의 생산증가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나 15년 동안 연평균 1220.3백만 달러의 생산증가가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섬유산업의 18.8백만달러, 철강산업의 16.6백

- 만달러, 석유화학 분야의 6.6백만달러의 순으로 생산의 증가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됨
- 전라북도의 경우 제조업에서 생산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는 주요 분야는 정밀화학과 기계 분야이며 정밀화학분야는 가장 많은 연평균 138.6백만달러의 생산감소가 일어날 것이며 기계 분야에서도 연평균 36.1백만달러의 생산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됨

〈표 2-3〉 한·EU FTA가 전라북도 제조업 생산에 미치는 영향

(단위: 백만달러)

	생산증감효과			
	1-5년 평균	6-10년 평균	11-15년 평균	1-15년 연평균
석유화학	11.4	4.2	4.1	6.6
정밀화학	-116.5	-150.3	-150.3	-138.6
섬유	19.2	18.8	18.5	18.8
철강	6.0	21.4	21.3	16.6
기계	-33.0	-37.7	-37.9	-36.1
전기전자	-0.3	1.9	1.9	1.2
자동차	900.9	1,378.5	1,378.5	1,220.3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기초로 전북부문 계산

1) 전북의 생산증감액은 국가의 총량에서 산업별 전북의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국내연평균*전북생산량비중)

●● 산업별 영향 분석

• 자동차

- 자동차 분야가 가장 큰 FTA 수혜산업이 될 것으로 나타남
- EU 수출증가 효과는 15년 평균 61.6백만달러일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역수지 흑자도 82.8백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측됨
- 국내업체의 현지생산 확대 및 EU산 자동차의 가격경쟁력에 따라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의 기대치에 영향을 미칠 것임

• 섬유

- 섬유분야는 EU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남
- 섬유분야는 전라북도가 EU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임

• 화학

- 석유화학은 흑자가 기대되나 EU가 상대적으로 강한 정밀화학 분야에서 전라북도가 EU의 공급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인 부분도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적자를 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

- EU로부터 대부분 전용설비 및 기계류, 머시닝 센터, 연삭기 등 범용설비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
- 건설 중장비, 공작기계의 전라북도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증대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농·축산 분야

●● 농축산업 파급효과

• 곡물

-쌀은 양허에서 제외되었고, 식탁용 감자는 현행관세 유지로 합의

-대두는 채유용 및 박용은 관세를 철폐하지만 우리나라 국산 콩의 주요 용도인 식용에 대하여는 현행관세 유지하고 식용대두는 유전자조작이 아닌(Non-GMO) 것을 수입. 현재 대두의 경우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미국과 중국산이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개방에 따른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맥주보리와 맥아는 관세감축 외 TRQ를 증량하기로 합의. 그러나 EU산 맥주보리는 경쟁력이 낮고 현재 국내산 맥주보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입증가와 그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감자의 경우는 감자전분 수입 증가로 인한 감자의 생산액이 일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채소

-고추, 마늘, 양파는 현행관세 유지로 합의

-생강, 파 등 기타 주요 채소류는 EU로부터 수입실적이 없으며,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됨

-EU가 관심을 가지는 토마토의 경우 EU는 토마토가 공품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국내 식품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북의 경우 관련 기업이 거의 없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

• 과일

-사과, 배는 관세철폐 기간이 20년으로 장기이며, 현재 EU로부터의 수입이 없는 상태. EU산 사과와 배의 경쟁력은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한 경쟁국들에 비해서도 낮기 때문에 EU와의 FTA로 인한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현재 미국이 EU로 사과와 배를 수출하고 있으나, EU가 미국으로 사과, 배를 수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EU의 딸기는 대부분 생식용이 아닌 가공용(케이크용 등)으로 재배되고, 당도도 낮아 우리 소비자의 입맛과

는 거리가 있어 수입 가능성은 거의 없음. 또한 유럽의 가공용 품종 딸기가 현재 중국에서 재배되고 있어 중국에 비해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

- 오렌지는 스페인산이 수입될 가능성은 있으나 품질이 낮고, 수입이 된다고 해도 병해충 문제 등으로 매우 낮은 온도(섭씨 0도 수준)로 저장·운송해야 하고, 이 경우 품질 저하로 미국산과의 경쟁에서도 뒤질 것으로 판단(일본시장에서도 스페인산은 거의 도태)
- 포도의 경우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계절관세가 적용되어 국내 출하기에 신선포도의 수입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는 포도주스 등 포도가공품의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축산

- 쇠고기는 미국과 호주로부터 대부분 수입되며, EU로부터 수입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가격경쟁력에서도 미국과 호주가 EU에 비해 높으며, 품질 면에서도 EU산이 경쟁국에 뒤떨어지므로 개방에 따른 피해는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EU는 돼지고기와 낙농품에 있어서 경쟁력이 높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실적도 좋아 FTA로 인한 수입 증가가 예상됨
- 돼지고기는 FTA체결 이전에도 EU로부터 수입량이 많았기 때문에 FTA체결로 국내 양돈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냉동삼겹살 수입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의 경우는 저장기간이 짧아 냉장육 수입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가정소비용은 국내산 냉장육 중심으로, 업소용은 닭날개 중심의 수입산 냉동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낙농품의 경우 국산 원유가격이 국제가격보다 2~3배 높고, 분유 제조원가도 수입 분유 가격보다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한EU FTA로 인해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전망됨. 특히 분유, 버터 등 보관성이 높은 유제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낙농가는 생산 감소와 소득 감소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전라북도 농축산생산 증감 효과

• 한·EU FTA로 인한 농업부문의 전라북도 주요 영향 품목

- 한·EU FTA의 국내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한·EU FTA로 인해 전라북도는 축산분야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감자, 포도(가공), 토마토(가공)에서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축산

- 돼지고기는 FTA체결로 인해 2010년 현재 890가구 1155천두를 사육하고 있는 전북 양돈농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냉동삼겹살 수입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닭고기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주)하림과 전북지역 육계농가(890가구, 1155천수)의 경우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전북 낙농가(401가구, 31천두)는 생산 감소와 소득감소라는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기타 품목

- 축산이외에는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감자, 포도, 토마토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포도의 경우는 가공품의 수입증가와 15% 수준의 관세철폐가 적용되는 와인의 수입증가에 따라 이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산 과실주 산업,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복분자주, 오디주, 산머루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표 2-4〉 한·U FTA 농업부문 수입영향 전라북도 주요 품목

구분	품목	양허관세율(%)	국내 생산액(04-06 평균)		대 EU 수입액(04-06평균)		양허안
			생산액(억원)	해당품목비중(해당품목/농림업생산액)	수입액(억원)	EU비중(EU수입액/전체수입액)	
곡물	감자전분	455	2,303	0.6%	221	99.2%	15년 철폐
축산	돼지고기	25	36,782	10.1%	2,893	50.9%	냉동 및 냉장삼겹살 10년 기타 5년 철폐
	닭고기	20	11,302	3.1%	333	43.1%	13년 철폐
	낙농품	36	15,293	4.2%	832	27.5%	현행관세 유지,
과일과채	포도(가공주스)	45	6,060	1.7%	88	39.1%	TRQ, 10년, 15년 철폐 등 즉시 철폐
	토마토	45	614	1.7%	49	16.4%	7년 철폐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일부 수정

- 한·U FTA 농업부문 주요 수입영향 품목의 전라북도 비중
-전국대비 생산량을 기준으로 육계가 2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양돈 11.9%, 감자 7.4%, 낙농 7.1%, 포도와 토마토가 4.9% 순으로 나타남

-한육우의 경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한육우의 전북 비중은 1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2-5〉 한·U FTA 농업부문 주요 수입영향 품목의 전라북도 비중

구분		전국	전북	전북비중
감자	농가수(호)1)	266,047	19,251	7.2%
	면적(ha)2)	21,396	1,923	9.0%
	생산량(톤)2)	591,053	43,882	7.4%
포도	농가수(호)1)	37,724	1,645	4.4%
	면적(ha)2)	17,996	890	4.9%
	생산량(톤)2)	332,978	16,207	4.9%
토마토	농가수(호)1)	13,751	833	6.1%
	면적(ha)2)	6,188	265	4.3%
	생산량(톤)2)	383,768	18,815	4.9%
양돈3)	농가수(호)	7908	890	11.3%
	사육두수(천두)	9,728	1,155	11.9%
육계3)	농가수(호)	2238	460	20.6%
	사육두수(천수)	101,690	22,506	22.1%
낙농3)	농가수(호)	6428	401	6.2%
	사육두수(천두)	432	31	7.1%
한육우3)	농가수(호)	175,491	15,375	8.8%
	사육두수(천두)	2,889	333	11.5%

1) 통계청(2005), 농업 총 조사, 2) 통계청(2009), 농작물생산 조사, 3) 통계청(2010), 가축동향 조사

- 한·EU FTA에 따른 전라북도 생산증감액
 - 향후 15년간 농업 부문 생산감소액은 연평균 1,77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북도는 국내 전체 생산감소액의 11.6%인 206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전체적으로는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1,649억원으로 약 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축산업의 생산액 감소가 연평균 202억원으로 약 98%를 차지하고 있음

〈표 2-6〉 한·EU FTA에 따른 전라북도 생산증감액

	국내 연평균 (억원)	전북연평균 ¹⁾ (억원)	1~5년	6~10년	11~15년
감자전분	10	0.7	-	0.6	1.7
돼지고기	828	98.5	39.0	112.2	144.5
닭고기	218	48.2	23.2	47.1	70.5
낙농	323	22.9	2.8	19.7	46.2
포도(가공주스)	32	1.6	1.6	1.6	1.6
키위	42	0	0	0	0
토마토	43	2.1	1.1	2.5	2.6
쇠고기	280	32.2	6.7	32.1	57.6
합계	1,776	206	74	216	325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2010) 내용을 일부 수정

1) 전북의 생산증감액은 전북의 생산량 비중을 고려하여 계산(국내연평균*전북생산량비중)

3.서비스업 분야

- 단기적으로는 전문 외국 서비스업체의 국내 진입으로 서비스업체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 될 것임
 - 국내 서비스산업은 대부분 소규모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영업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외국 서비스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음
 - 단, 금융분야의 경우 2000년대부터 꾸준히 개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산업의 경쟁으로 인해
 -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발생할 것임
 - 서비스업의 경우 정보 교류 및 기술 개발이 제조업에 비해 빠른 시간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방에 따른 부작용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는 산업임
 - 외국 서비스업체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서비스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국내 서비스산업의 질 향상은 서비스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제조업이나 기타 산업 부문의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가격 경쟁력 향상과 함께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전라북도에서 서비스산업 중에서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분야는 도소매업, 관광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으로 이들 분야에 대한 한·EU FTA 체결에 따른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도소매업이나 관광서비스산업의 경우는 내국인의 기호에 맞춰 대응해야 하는 관계로 외국 서비스업체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어학원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중국어나 일본어인 관계로 유럽 지역의 학원이 들어설 가능성이 낮음
- 한·EU FTA로 인해 개발되는 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수요로 하거나 국가 기반 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외국 서비스업체가 전라북도로 들어올 가능성은 낮음
- 문화 분야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며, 통신 분야의 경우 국가 기반 산업의 성격이 강함
- 금융 분야와 법률 분야의 경우는 국제거래에 관련된 서비스 분야 개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으며, 산업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들 분야의 개방으로 인해 전라북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분야의 외국 서비스업체가 전라북도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음
- 환경분야의 경우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환경분야의 기업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환경분야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환경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 하나의 사업이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 역시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의 전략산업 중 하나인 식품 산업의 경우 오염물질배출원단위가 큰 산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같이 환경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관련 외국 서비스업체의 집중 타겟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5년의 유예기간내에 환경분야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제 3 장 분야별 대응방안

1. 제조업 분야

-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산업
 - 긍정적인 효과 기대, 적극적 투자의 기회요인으로 삼아야
 - 자동차의 경우 수출 및 생산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최근의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
 - 한·EU FTA로 인하여 14.6%의 수출증대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역 내 자동차 기업의 추가 신규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요구됨
 - 관세는 철폐되나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걸림돌
 - 관세장벽의 철폐로 무역이 증대할 것으로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는 아직도 존재함
 - 특히 배출가스 규제와 같은 환경규제는 EU가 강한 편이고 이와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하이브리드카 개발과 같은 R&D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공공차원의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R&D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임
 - 장기적 경쟁력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필요
 - 단기적으로는 한·EU FTA를 통하여 수출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한시적으로 한·EU FTA로 인하여 무역특화지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무역특화지수는 단

기적으로는 한·EU FTA에 의해 보전이 될 것이지만 이 효과가 상쇄되면 장기적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파악하여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2. 농·축산 분야

- ● 기본방향
 - 수입량 급증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필요
 - 한EU FTA로 인한 전라북도 농업분야 생산감소액은 연 평균 206억원으로 전라북도 전체 농림어업생산액(2007년 전라북도 농림어업 GRDP 2조 6,246억원)의 1% 미만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단위 소득보전 직불제 등이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게는 보상지원과 함께 생산 및 사육 제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함
 - 피해품목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쟁력 제고 지원 강화
 - 한EU FTA로 인한 생산감소액의 98%는 축산업분야에서 발생하므로 축산업 부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성 강화 및 품질 고급화를 통해 수입산과 차별화
 - 우수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 개편 및 종축산업을 적



- 극적으로 육성
- 농식품 수출 확대
 -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하여 EU로부터 저렴한 가격에 수입되는 농축산 원재료의 가공을 통해 동북아 시장을 겨냥한 수출확대로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공격적인 수출전략 시행
- 품목별 대응방안
 - 양돈분야
 - 우량 종돈 선발 및 축사 현대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생산성을 제고
 - 우수 경영체 육성 및 계열화 추진을 통한 양돈 브랜드 육성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 진안 감도야, 남원 흑돈클러스터를 친환경 자연순환농업과 연계·육성하여 생산비 절감과 함께 전라북도의 고품질 양돈 브랜드 이미지 구축
 - 낙농분야
 - 생산비절감과 유통혁신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사료작물, 총체보리 기반시설 및 조사료 유통시설 지원 등을 강화
 - 기능성 유제품 개발 지원 및 우유소비 확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우유 소비를 촉진
 - 임실읍을 중심으로 치즈특구로 조성하여 치즈거리, 임실치즈시장 개설, 경관초지 등을 조성하여 임실치즈 이미지를 극대화하여 전라북도 낙농산업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 특히 임실치즈를 기존 대형업체와 차별화된 고품질 수제치즈 중심으로 육성하고, 목장단위 낙농 체험·관광산업 지원을 통해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 육계분야
 - 계열업체 중심의 브랜드화를 통한 품질 고급화 및 사육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지도·교육하여 소비자 신뢰도 제고

-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질병관리 효율화 추진으로 경쟁력을 제고함
- 과실주분야
 - 과실의 품질고급화 추진 및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
 - 생산·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당도가 높은 과실 생산을 위한 비가림 시설 재배 면적 확대

3. 서비스업 분야

- ● 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 한·EU FTA로 인해 당장 전라북도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반적인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됨
 - FTA 이후 서비스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외국 서비스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져 산업 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전라북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비스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 기반을 보호하는 정책보다는 신규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기에 용이함
 -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새만금을 국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외국계 기업 및 사람의 왕래가 자유롭고 생활수준이 본국과 유사한 수준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계 서비스기업의 진입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음

-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산업 R&D 투자 필요
- 환경분야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지역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과 연계한 동진·만경강 유역이 환경 분야의 유럽 서비스업체의 주요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음
- 5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기간내에 유럽과의 기술 경쟁력이 대등하게 될 수 있도록 환경 분야에 대한 R&D 투자가 필요함

제 4 장 부 록

〈부록 1〉 HS 코드별 산업분류

HS 코드	산 업
29	유기화학품
38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54	인조장섬유
55	인조단섬유
57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바닥 깔개
61	메리야스 및 뜨개질 편물의 의류와 그 부품
64	신발류, 모자류, 산류, 지팡이, 시트스틱, 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72	철강
73	철강의 제품
84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87	철도 또는 궤도용 이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